보수에서 개방,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김 병 만 대표이사
고령군 개실마을영농조합법인

1. 사업추진 배경

내가 살고 있는 개실마을은 조선 중엽 영남사림학파(嶺南士林學派)의 종조인 점필재 김종직선생(金宗直 : 1431-1492)의 후손들이 350년간 이어져온 선산(一善)김씨 집성촌으로 종택에는 종손어른과 종부어른이 생활하시며 마을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분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일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통을 중시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도 마을회에서 전통가옥을 보존키로 의결하여 가구의 80%가 전통한옥을 보존하여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고령지역은 각 마을마다 딸기, 수박, 메론, 감자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농작물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부농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 개실마을은 딸기 이외에는 특정사업이 없어 다른 마을에 비교하면 그리 잘 사는 마을이 아니었다.

또한 마을의 전통과 유교문화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주민 누구도 마을을 변화시킨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 농촌에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어느 농촌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2001년도 군청에서 우리 마을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안했다. 군청의 담당자가 우리 마을을 찾아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때만 해도 나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뭐 얼마나 효과가 있어 우리 마을이 잘살 수 있겠나 싶어 다들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 마을에 17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면 마을의 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니 마을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면서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다른 마을을 보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왜, 우리가 잘 살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생겼다.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마을로 만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 마을이 잘 사는 마을이 되려면 마을사람이 변해야 한다.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통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위한 행동과

실천이 시작되면 우리 마을은 반드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먼저 마을어르신들을 설득해 동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 또한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마을하수처리장설치, 상수도개선, 마을을 관통하는 개울복원사업의 세 가지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마을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쯤에 농촌관광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지만 "매일 매일이 똑같은 우리네 일상이 어떻게 관광이 될 수 있을까" 또 의구심이 들었다.

문화와 전통이 있지만 특성이 없는 농사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공부해보고 이후에 더 생각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군청 담당자와 함께 농촌관광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 그대로 탐험하기 시작했다.

농촌관광이 잘 된다는 곳을 찾아서 살펴보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이른 새벽에 나와서 나의 논밭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논밭으로 나간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하고 보니, 농촌관광은 단순히 농촌에서 관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져야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개실마을은 아름다운 한옥, 유교문화, 농촌문화, 협동적인 마을주민이 있기에 농촌관광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2. 추진 과정

○ 보수에서 개방,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전통을 사랑하는 개실마을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농촌관광 전문가들이 가장 염려한 부분이 양반동네의 보수적인 생활양식이었다.

남녀간의 구분과 엄한 유교적 관습이 존재하고 있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녀자들은 바깥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시골 5일장 출입 또한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농촌관광은 농촌관광이 이루어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농촌체험이 활기를 찾게 되면 부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실마을이 우리 일가로 이루어진 씨족동네이고 보니 종손은 독보적 존재이다. 사실 종손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농촌관광만 하더라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리 종손 어르신 설득하느라 정말 어려웠다. 아침저녁 문안에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들이고, 관광객들

▼ 개실마을 전경

2006 농촌지역가꾸기 합동시상식에서 사물놀이 공연장면

을 들이려면 마을주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겹도록 반복적인 나의 설득에 종손 어르신도 농촌관광을 허락하셨고 나는 관광사업이 우리 마을사람 모두를 잘살게 할 거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추진해 갈 수 있었다.

종손어르신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 농촌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이 활성화 될 때 마을이 망해간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강도가 약해지셨지만 아직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건 역시 어르신들의 쉽게 바뀌지 않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다.

그 예로 2006년 4월 20일, 신활력사업에서 지원한 개실마을 농촌체험장 개원 행사를 앞두고 부녀회를 중심으로 풍물단을 조직하여 식전행사를 5개월간 준비하였는데 행사 시작 이틀 전 동네 어르신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인즉 양반동네에 초청한 손님들 앞에서 부녀자들이 흥에 맞추어 엉덩이를 흔든다는 이유였다. 정말 황당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부녀회 회원들도 이번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5개월간 노력을 해왔는데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었다. 개실마을이 지금도 이런 사고가 존재하는 양반마을의 동네로구나 하는 갑갑한 마음도 생겼다.

그렇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찍 포기하는 부녀회 회원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는 설득을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허락은 하되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뜻을 전해왔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설득했고, 마지막까지 이어진 설득으로 그날 참석하지 않겠다는 어르신들이 결국 모두 참석하게 되어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그렇게 행사가 끝난 후 마을주민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는 마을 어르신네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다음에도 더 잘 하라는 격려와 함께였다. 다시 한 고개를 넘어온 기분이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우리 마을의 안팎 사정을 알고 있는 농촌관광 전문가들은 양반동네의 보수성을 극복하고 농촌체험마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나는 우리 마을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마음먹었다.

3. 경제적,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 마을 방문객 증가현황

2004년 7월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체험행사가 개최되어 2005년 10,597명, 2006년 13,324명의 체험객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2,727명의 방문객수가 증가 되었다

새로운 시설의 도입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마다 관광객 증가의 단계가 변화 되었다. 대구

시티투어단 등의 고정적인 방문객 확보와 대구 · 경북 소재의 초 · 중 · 고등학교의 대단위 단체 방문객의 증가를 통한 구전효과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와 우리 마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현재는 대구 시내의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하여 농촌관광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체험마을 방문객 현황 : 명)

기간	A(2005. 1.1~2005. 12.31)					B(2006. 1.1~2006. 12.31)				
구분	계	체험		교육(견학)		계	체험		교육(견학)	
		당일	숙박	당일	숙박		당일	숙박	당일	숙박
	10,597	3,065	109	7,423	-	13,324	6,457	342	6,525	-

○ 개실마을 농촌관광 소득 증가현황

2004년 7월을 시점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수입이 발생되어 2005년 29,163천원, 2006년 159,000천원으로 소득증가액은 129,837천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소득증대를 통하여 마을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체험마을 소득 현황 : 천원)

기간	A(2005. 1.1~2005. 12.31)						B(2006. 1.1~2006. 12.31)					
구분	계	숙박	식사(음식)	체험프로그램운영	농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	계	숙박	식사(음식)	체험프로그램운영	농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
	29,163	700	1,550	14,611	11,348	954	159,000	3,000	11,200	76,650	8,150	60,000

○ 체험마을 고용효과 (부녀층, 노령층의 역할 분담 등)

나는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농촌관광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기를, 좀 더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을의 이름을 이용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결심하였다.

먼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한과 만들기로 부녀자들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딸기농사를 하지 않는 농가의 부녀자들을 위주로 한과를 만들어 설 선물용으로 판매하였는데, 이때의 고용인원이 연간 300명이다.

또한 농사가 적은 농가를 위주로 하여 부녀회를 3개조로 편성하여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여 방문객에게 음식 제공하였더니 연간 88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

노인회의 노령화된 인력은 어른들의 전공지식을 살리도록 하였는데, 이분들은 개실윷 만들기 체험 및 예절교육을 담당하여, 총 9명을 고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에 몸이 불편하셔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샘이다.

○ 배움의 길 실천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 및 마을 역량 강화

개실마을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마을로서의 전통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면서 그 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접목되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농촌관광이 잘 실현된다고 하여서 모두 다 원활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참여농가가 친척들로 구성되어 단합이 잘되는 반면 동네에는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사안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 서열위주의 결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일과 반대방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지금도 농촌관광에 대한 회의론자와 긍정론자, 방관자가 혼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이전에 경험한 교육들을 지역주민에게 참여하도록 권하며 의식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농촌관광분야의 다양한 교육기관

을 통해 배움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1년 과정 교육(농촌관광대학, 농업벤처대학), 경북대학교 농업특수대학원, 농협주관 팜스테이 교육, 농림부주관 교육(갈등관리기법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농촌관광대학 2기에 졸업한 부녀회 회원 3명은 그간 양반동네에 시집와서 가사에만 전념하였으나 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

부녀회 이경태 총무는 매일 마을일로 체험행사 준비와 진행 등 무보수 봉사와 김숙자(68세), 이추자(67세)회원은 고령임에 불구하고 관광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마을에서도 마을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며 앞장서 부녀회를 격려하며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분들은 관광대학교육이 당신들 인생변화의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두 분 왈 '내가 십년만 젊었어도 일낸다' 하시면서 두 분이 마을을 위해 하시는 일을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하시고 농촌관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다.

올해도 농촌관광대학에 4명이 입학하여 농촌관광이란 배움의 길을 계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벌써 부녀회 회원 3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가 우리 마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힘이다. 웃음이 끊일 날이 없다.

○ 스스로 교류하는 개실 마을 : 풍물놀이 정기적인 학습 (회원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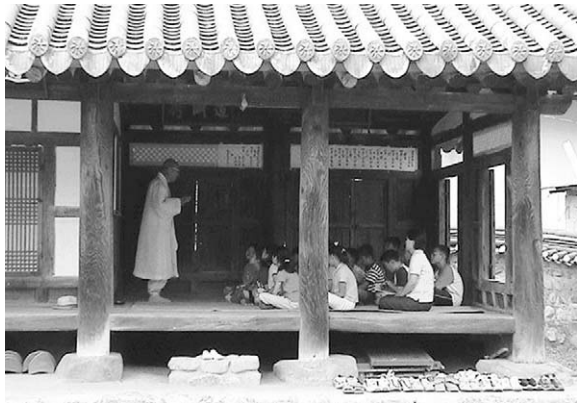
나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학습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어떤 것을 시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부녀회 회원들에게 물어보니 풍물놀이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청 관계자와 논의하니 지도해 주실 분을 선정하는 것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차분히 준비하니 2005년 12월 2일부터 2007년 1월 현재까지 주 2회(화 · 금요일) 풍물놀이 정기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정환석(경북도립국악단 상임단원)님을 초빙하여 정규적으로 학습하고 있는데 군청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촌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작하고 보니 풍물놀이 학습장이 단순히 학습장 역할만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나는 스스로 교류하는 개실마을이라고 말하고 싶다. 때로는 동네 사랑방 역할로 마을현안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장이 된다. 서로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연주하면서 일전에 발생한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또 새로 생각해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얘기하기도 하고, 계획된 농촌체험 일정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된 풍물놀이는 마을주민에게 농촌관광에 대하여 스스로 교류하는 마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즐기도록 도와주고 있다. 인생이 아름다워 졌다고 말하는 우리 마을 분들, 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마을 풍물단은 농촌체험마을 개원식 식전행



전통문화(풍물놀이) 체험

사(2006. 4. 20), 대보름 맞이 마을 지신밟기(2006. 1. 11~1. 13. 3일간), 단체관광객 풍물놀이 한 마당(15회), 농촌관련 행사, 마을축제, 종친회 등 문화행사로 봉사하고 있다.

○ 부녀회의 단합과 인정(人情)으로 무장한 농촌관광의 힘

이쯤에서 우리 부녀회 자랑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우리 부녀회 회원들은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15명이 3개조로 나누어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을 마을공동 기금으로 조성(개인이득보다 먼저 마을발전을 위한 무한봉사)하고 있으며, 수입금 일부인 칠천만원을 농촌체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모습과 공동운영을 통하여 우리 마을주민들이 개인적인 이득에 집착하기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인정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현재 벤처농장조성(주말농장), 놀이기구 만들기(대나무 물총 등), 잡기 체험장(미꾸라지잡기 등) 조성 등에 다 함께 공동작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부녀회 자체조직으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지분(10%)과 개인의 지분(90%)을 나누어 농촌관광 수입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개실마을만의 독특한 운영방법으로 경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촌관광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06년 에버랜드와 농촌마을 자매결연식

4. 공유 · 활용 내역

○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는 이렇게 발전하는 개실마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마을만 이렇게 농촌관광의 기쁨을 맛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6년 전 나도 농촌관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농촌관광을 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관련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면서 농촌관광의 꿈을 키웠지 않았던가. 이제 지역의 다른 마을과도 그 꿈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농촌관광 강좌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마을 발전위원회, 농촌관광 전문가분들, 군청 담당자와 논의하였더니 다들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해 주셨다. 발걸음도 가볍게 다시 전국을 휘저어 강좌에 와주실 분들을 찾고, 또 우리 마을을 들를 때마다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다고 내게 언질을 주었던 분들을 방문하여 강좌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렇게 준비해서 강좌의 이름을 『개실마을 농촌관광 강좌』라고 명명하고, 지난 2006. 4. 20 농촌체험장 개원을 기점으로 제1회 강좌를 성황리에 시작하였다.

이제 개실마을에서는 개실마을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마을주민과 관내 4개 체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의식교육과 전문학습과정을 2개월 단위로 개강하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현장학습을 개최하여 현장견학과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의를 한다.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이 농촌관광을 체험하며 변화하고 있다. 우리 마을을 기점으로 군내에도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5~6개 정도의 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분들도 우리 개실마을 농촌관광 강좌를 가장 먼저 수강하였다. 나는 농촌관광을 통해 마을의 소득과 이웃간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다.

5. 기타활동 등

많은 사람들은 농촌의 현실에 괴로워한다. FTA, 고령화, 지속적인 소득의 감소 등 문제를 찾고자 하면 오늘 밤이 지나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걱정을 하기 전에 우리 개실마을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이시지만 오늘도 즐겁게 농사일과 농촌관광을 준비하고 학습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생산물들이 판로를 잃고 있다고 하여도 누구든 농부의 땀의 힘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농촌관광을 통하여 개실마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농촌관광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농촌관광은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농촌을 경험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결속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고,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유기농 재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나는 우리 개실마을에서 농촌관광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객의 증대에 맞추어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사업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화라는 표현이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촌관광의 통합적 모델로 거듭날 것이다. 나는 농촌관광이 앞으로 우리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업이 더욱 확산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 이제 농촌관광의 리더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마을 는 누구라도 농촌관광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참여하고 있다. 누구든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없이 개실마을 농촌관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 개실마을은 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학습을 통하여 무장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농촌관광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종손어르신과 마을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지켜주실 것이다. 2001년에 농촌관광을 시작하고 6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개실마을은 점차적으로 농촌체험관광에 의한 농외소득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조짐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다.

농촌관광이 완전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통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학습, 강력한 리더십, 투명한 소득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관광이라고 하여서 단순히 자연만을 경험하게 하기 보다는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개실마을은 주민들의 참여로 가구별 특성을 살린 농촌자원들을 활용하여 테마화(마을 첫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테마 마을조성) 하기로 하였다. 나와 우리 개실마을의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